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 2019. 03. 27. 아프리카·중동	「동향세미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지대(AfCFTA)의 추진 현황과 과제 작성 김예진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

□ 지난 3월 21일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정문을 비준하면서 현재 총 21개국이 AfCFTA를 비준함.¹⁾

- AfCFTA는 22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의 30일 후부터 발효될 예정임.²⁾

○ 카메룬은 4월에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준을 격려하는 등 다른 서명국들도 비준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이에 AfCFTA가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이행 사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 실질적인 교역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시행 후 5년 이내 관세선의 90%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목표이나 현재 1단계(Phase 1)에 해당되는 상품, 서비스 및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상품 양허안의 경우 지난 2월 AU 정기총회에서 기타 10%에 해당되는 민감 및 예외 품목의 범위까지 합의함.³⁾

* 민감 및 예외 품목의 경우 식량 안보, 국가 안보, 재정 수입, 생계 및 산업화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한하되, 민감 품목은 관세선의 7% 이내로 제한하고 10년 내(최빈개도국의 경우 13년 이내)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예외 품목의 경우 관세선의 3% 이내 및 역내 총수입액의 10% 이내로 제한함.

○ 서비스 양허안의 경우 양허안 작성을 위한 지침서만 마련된 상태임.

- 1단계 논의가 지체되면서 2단계(경쟁 정책, 투자 및 지적재산권) 논의도 지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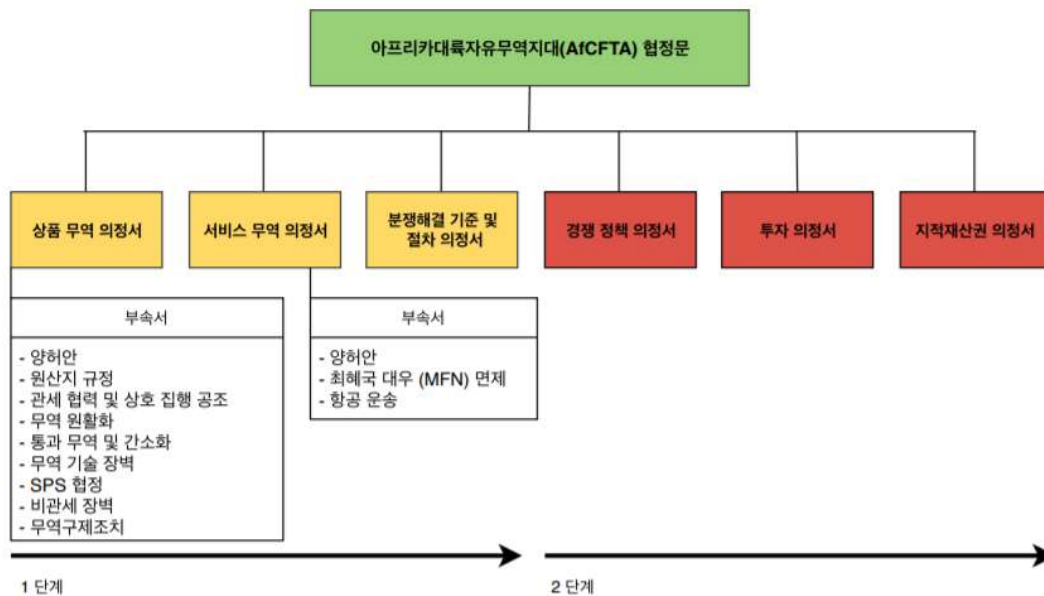
○ 1단계 논의 사안인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 양허안의 제출 기한이 각각 2019년 1월에서 2019년 7월과 2020년 1월로 연장되면서 2단계에서의 의정서 제출 기한도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로 연장됨.

1) AfCFTA는 2018년 3월 21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10차 임시의회에서 55개의 회원국 중 44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52개국이 서명함.

2) 비준국: 케냐, 가나, 르완다, 니제르, 차드, 에스와티니, 기니,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에라리온, 말리, 세네갈, 나미비아, 콩고, 토고, 모리타니, 지부티, 이집트, 짐바브웨. 단, 시에라리온, 세네갈, 토고, 이집트, 짐바브웨 및 에티오피아의 경우 비준되었으나 아직 AU에 비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3) AU, 2019.2.11., "Key Decisions of the 32nd 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of the African Union (January 2019)," <https://au.int/en/pressreleases/20190211/key-decisions-32nd-ordinary-session-assembly-african-union-january-2019>; Tralac, 2019.1.23., "Updates from the 7th African Ministers of Trade Meeting (12-13 December 2018)," <https://www.tralac.org/blog/article/13854-updates-from-the-7th-african-ministers-of-trade-meeting-12-13-december-2018.html>.

그림 1. AfCFTA 협정문의 구조



자료: TRALAC,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Questions and Answers, p. 3.

□ AfC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협정문의 조속한 완성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도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아프리카 내 여러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⁴⁾가 각기 다른 수준의 관세 및 서비스 협약을 맺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교역 인프라(통관 규정, 부패, 물류 인프라 등)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교역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산업화의 수준이 낮고 중복되는 교역 품목이 많아 제외 품목의 범위가 넓을 경우 AfCFTA의 목적과 상충되어 효과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음.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시 한국의 진출 기업들은 우선 비교적 지역 통합 수준이 높고, 물류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으며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명확한 REC 회원국들을 초기 진출 거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MERiCs**

4) AU에서 인정하는 REC는 현재 총 8개(AMU, CEN-SAD, COMESA, EAC, ECCAS, ECOWAS, IGAD, SADC)로 COMESA와 SADC는 자유무역지대, ECCAS와 ECOWAS는 관세 동맹, EAC는 단일 시장 수준으로 발달됨.